

Jane, What Is Your World?

《이유성 개인전: Jane》 (위켄드, 2019.4.26-2019.5.19) 리뷰

황원해

전시 명인 “제인”은 미국인 여성을 연상하는 흔한 이름이다. 제인은 누구인지, 작가와 제인의 관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처음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나무로 다듬어 만든 귀 모양의 조각은 피어싱이 박혀있어서 실제 사람의 귀처럼 보인다. 피어싱은 모두 차가운 금속과 그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나무로 만든 조각과는 상반된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대조적인 재질로 만들어진 귀 조각은 전시의 프리퀼이다.

바로 뒤편에는 결이 다른 나무로 만든 조형물이 있다. 언뜻 보았을 때 마이크를 확대한 형상 같기도 하고 음파의 모양을 탄 것 같기도 한 격자 형태에 리듬감 있게 칠해진 형상은 전체적으로 음악을 연상시킨다. 이 조형물은 가벽 앞에 설치된 귀 조각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음악, 음절의 형태로 연상된다.

조형물을 등지고 오른쪽 첫 번째 벽에는 같은 재질에 완전히 다른 형태의 톱니모양나무 바(bar)를 프레임 모양으로 교차시킨 작업이 걸려있다. 날카로운 음성으로 표현된 톱니 모양의 조형물에는 ‘해리포터’ 폰트로 기억에 관한 영어 문장들, 감탄사가 쓰여있다. 완결되지 않은 움직임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오른쪽 방향으로 두 번째 벽인 채도 높은 파란색 벽에는 은색 철판으로 만들어진 작업이 벽에 걸려 있는데 배경의 색감 때문에 차가운 스테인리스의 질감이 강조된다. 멀리서 보았을 때 그래픽으로 만든 평평한 판은 가까이서 보면 철판에 칼집을 내서 하나하나 접은 모양과 접힌 모양의 그림자이다. 앞선 톱니 형상의 나무 조형물과 마찬가지로 뾰족하되 재질의 차이로 훨씬 섬세하고 예민해 보인다.

이 조형물의 바로 옆 바닥에는 나무 재질의 원형 덩어리를 원뿔 모양의 네 개의 쇠조각이 윗부분으로 받치고 있는 조각이 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이 조각은 손가락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다. 쇠의 물성은 강하지만 원뿔이라는 형태 때문에 견고하지 않다. 오히려 위에 올려진 나무는 우직한 형태로 흔들림 없이 견고한 인상을 준다.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까.

나무가 작가이고, 쇠조각은 제인인가? 쇠조각이 작가이고, 나무가 제인인가?

제인은 누구인가?

작은 조각 바로 옆에 놓인 오려진 모양의 나무 판넬에서 제인에 관한 단서를 찾았다. 낡고 오래된 사진을 확대해서 그린 것처럼 보이는 판넬에는 이목구비가 그려지지 않은 여자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추상적인 작업 중 누군가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여자를 제인으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작업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는 그녀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녀는 처음 연상했던 것처럼 영미권 사람으로 추측된다. 이곳에는 한글로 쓰인 말이 없다. 영어나 감탄사뿐이다.

나무와 스테인리스, 덩어리와 얇은 판, 둔탁함과 섬세함, 곡선과 직선, 또렷함과 흐릿함. 귀 조각으로 시작한 전시는 대조적인 형태와 재질의 반복이다. 계속해서 상반된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영문의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전달되고자 했지만 상반된 이유로 흩어졌다. 그 누군가는 귀 조각에서 가장 멀고 대각선으로 대척점에 놓여있는, 얼굴 없는 여자 제인이다. 해체된 메시지는 다양한 폰트로 작성되어 상대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추상적인 조형물에 박제되었다.

작가는 계속해서 제인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다. 일방적인 외침으로 가득한, 긴장된 관계. 이목구비가 사라져 표정을 알 수 없는 그녀는 본인만이 가진 세계 속에 있다. 그 세계는 좀처럼 틈이 없다. 주변을 배회하는 언어를 들여다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멈춰있을 뿐이다. 문득 그녀의 세계가 궁금하다.